

# 더 큰 의욕을 향한 첫걸음

새로운 <문화예술>의 편집기획 방침

<문화예술>이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흔히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의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은,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시작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편집위원들과 실무진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발행되어 오던 잡지를 일신하는 데는 전연 새로운 매체 하나를 창간하는 이상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편집위원진이 구성되기에 앞서 김언호 위원, 구히서 위원, 안상수 위원, 전효관 위원으로 구성된 발간준비위원회의 고뇌 어린 숙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때 개진된 중요한 생각들을 이어받아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매체의 컨셉트부터 기획의 기초, 필자와 독자를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전반적 편집 방침까지 모든 것이 충분한 공감과 동의 위에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추어 첫 호의 기획안을 마련해서 구현하고, 이를 또 완전히 개편된 편집디자인에 담아내야 하는 일까지가 모두 넉넉하지 않은 시간에 완수돼야 했기 때문에, 편집위원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이번 호의 발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이번 호 <문화예술>이 모든 점에서 혁신적 성과를 담은 성공작이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평가는 저희들 몫이 아니기에 이런저런 자평은 마음 속에만 담아 두기로 합니다. 다만, 혁신을 향한 의욕과 노력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쏟고자 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자세와 이 잡지의 지향점을 전하고자 하며, 평가의 초점도 거기에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비자의 관점, 복지적 권리로서의 예술 향유권을 중시

<문화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의 핵심가치인, 예술 활동이 즐기차게 이뤄지는 창의적인 사회,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물론 모든 방면에 노력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집중과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 추상적 가치에 대한 실천적 수준의 관점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특히 중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예술의 영역에서 창조자와 수용자는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층위를 달리하는 생비자(prosumer, 생산자이자 소비자)와 같다는 관점입니다. 둘째는 예술과 문화의 성취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적 권리로서 제공돼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로 삼고 편집기획의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통합적 시야를 갖는 주제 탐구형 잡지 지향

문학·시각예술·음악·무용·연극 등 예술 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잡지라는 본래의 성격은 전반적인 혁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 종합성은 <문화예술>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뤄야 할 영역이 너무 많은 데다가 분야간 형평도 놓칠 수 없는 과제가 됩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지 수준의 양과 깊이를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지의 단순 합산이 되어서는 발간 의의를 가질 수 없고, 또 그러한 잡지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 전문지가 가질 수 없는 통합적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 장르를 넘나드는 공통의 징후와 화제를 찾아내고 이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잡지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는 이 강점을 잘 살려 나가는 쪽으로 혁신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문화예술>은 다분히 ‘주제 탐구형’ 잡지의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분야간의 형평은 상대적으로 우선시되지 않는 가치로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적인 시야를 유지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형평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야가 아닌 접근 방식에 따른 섹션 구성

이에 따라 책의 구성도 ‘분야 구분’이 아니라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창작-매개-향수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적 시야에 바탕을 둔 ‘징후와 진단’ 및 ‘지향과 전망’이라는 2개의 주제 섹션을 전면 배치해

비중 있게 신습니다. 이 섹션들에서는 장르를 가로지르는 문화예술계의 징후를 읽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문화예술의 현상과 본질을 묻는 문제의식들을 담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징후와 진단’ 섹션에서는 예술 창작이 이뤄지는 현장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향과 전망’ 섹션에서는 현재 감지되고 있는 변화를 함축하는 키워드를 선정해, 감상과 비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 향유 활동과 예술 정책 등의 분야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 미래를 가늠해 봅니다. 문화 연구와 문화비평적인 분석이 가미됩니다.

‘리뷰’ 섹션에서는 해당 기간 발표된 작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비평·인터뷰·감상·보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아고라’ 섹션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상자와 독자의 비평과 감상과 제안, 그리고 국내외 문화예술 뉴스를 담습니다.

### 정보보다는 비평, 창작과 함께 감상자의 참여도 중시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예술 관련 정보도 거의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만큼 정보 제공의 성격을 갖는 기사는 과감히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간으로 발행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물론 시의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시의성 그 자체보다는 문화와 예술의 본질을 묻는, 시간이 흘러도 의미를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비평과 논고 성격을 갖는 기사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예술인, 예술 현장 관련자, 예술 전문가, 예술 애호가를 주된 독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향유자로 확대돼 가야 할 일반 독자도 좀더 배려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타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깊이 있는 내용을 되도록 쉬운 말로 담아내고자 했고, 창작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예술과 접촉하는 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일반 감상자의 기고도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예술의 풍성함을 담은 창조적 편집디자인

예술을 다루는 잡지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예술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간준비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서 줄곧 강조된 점이었습니다. 풍성한 예술 작업을 전하고 논하는 것이 이 매체의 주요 목적이라면, 디자인을 통해서도 예술계의 전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화예술〉은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실험적인 진취성을 추구하되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의

정통성, 즉 텍스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풍성함은 살리되 품위는 잃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였습니다. 섹션별로 ‘읽는 지면’과 ‘보는 지면’으로 대별되는 기본형을 두고 문화예술의 각 장르가 갖고 있는 다양함과 풍성함을 반영하는 지면 변화를 통해 변주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 〈문화예술〉 323호의 주제와 키워드

이번 호 ‘징후와 진단’ 섹션은 ‘세계로 열린 한국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예술가들이 세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예술이 세계를 지향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 분야의 전문가 좌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새로운 감수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의 흐름과 변화를 이끌어내갈 젊은 예술인들의 얼굴과 짧은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번 호 ‘지향과 전망’ 섹션의 키워드는 ‘예술 읽어주기’입니다. 미술과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읽어주기’ 개념의 접근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점검합니다.

큰 의욕은, 의욕의 단계에서는 미덕이어서도 실행의 단계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일부 과욕에 가까운 의욕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의욕들에 입각해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하며, 그 첫걸음으로 〈문화예술〉 323호를 여러분 앞에 내딛습니다. 애정어린 질책으로 발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강무성, 김소연, 김승현, 박영택, 송혜진, 우찬제, 정재숙, 진희숙